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맡기신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인 다윗 공과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새겨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받은 교훈이 온전히 전해질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오늘 공과는 거룩한 분노의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그 다윗 그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골리앗을 싸워이긴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주제입니다.
읽었던 본문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것이라 주의 종이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우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물매와 돌매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물매와 돌맹이 사용하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아 나는 과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공과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해져있을까?
혹시 익숙하다는 착각 때문에 익숙하다는 교만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아이들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무모함을 혹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과를 통해서 나와 아이들사이를 교란시키고 또 가로막고 있는 그 사단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맹이처럼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 쓰러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과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이렇게 사자와 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익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

각을 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공과내용에서 가장 대조되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두 장면입니다.
가장대조적인 장면 하나는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돌맹이를 줍고 있는 모습, 장난하는거 같잖아요.
하나는 그 돌맹이에 맞아서 단번에 쓰러지는 골리앗의 모습 ...엄청나잖아요.
장난같이 보였던 그 돌맹이 줍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당대 최고의 적이었던 블레셋과 그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돌맹이 줍는 장면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돌맹이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돌맹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딱 쥐여지니까 그리고 그가 그 돌맹이를 날리니까 하나님의 손이 돌맹이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그 놀라운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다룰 이야기입니다.
이 두사람의 대결..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됩니다.
지난시간에 사울에 대한 공과를 배우셨을 겁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점점점점 퇴보해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 왕을 예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왕 그가 다윗이고 그 다윗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사울과의 만남,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현장에 찾아가게된 다윗의 모습...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꼭 세우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큰 주제입니다.
시작은 아주 좋은데 끝은 철철하게 망한다.
중간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났죠.

그리고 가롯유다는 열두제자롤 시작해서 배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주좋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왕이되었는데 교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철철히 망하게되는 그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그 것이 한마디로 사울의 생애다.
사울의 생애가 주는 성경에서의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장면장면들을 보게되면 항상 자신의 죄를 자기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항상 나에대해서 관대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야 내게도 다윗과같은 아니....사울과 같은 아집이 있구나
사울이 아집으로 인해 망했더라면 내게도 큰 경계가 될 수 있겠다.
아집... 그 것은 신앙의 최대 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렇게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6장 보시면요.
16장 1절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배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있지말고 가서 내가 예비한 내가 예선한 한왕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온세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자면 다윗왕...틀림없을 겁니다.
세 번이나 기름부움을 받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계를 탁 세우는 인물...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왔을까?
그 힌트가 그 답이 16장 7절에 있습니다.
16장 7절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중심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마음에 쏙드는 한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 ...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건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건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한사람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중에 한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탁 찾았을 때 그를 두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사람...중심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는 그 과정에 나름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보시면요.
16장 11절보시면
(11:07)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제가 톤을 낮춰서 읽었는데요 클라이막스답게 읽어올리겠습니다.
야~~네 아들들이 여기 다...다냐? 이게 다라면 큰일난다. 또 없냐?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이새가 말하는겁니다. 말째가 하나 있기는한데요. 양치러 나갔는데요.
이 이새의 말투는 이런겁니다. 아직 말째가 남아있기는한데, 당신은 지금 그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붙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걔는 양치는 얘고 미성년자이고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를 데리고 오면 기름 부을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아주 회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질문은 이게 다냐?
이러면 안되는데....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에게 있을거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없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붙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것입니다.
겨우 양치는 아이에 불과했던 다윗의 어린시절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양치

는 아이가 아니었죠.
다윗은 그 어린시절동안 양치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하는거 같죠. 너는 사람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도 훈련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내일도 훈련하자
잘하고 있다.
이땐 이렇게 하는거야
이때는 치고 나가는거야
이땐 입벌려서 꺼내는 거야
그래 잘했어 또 그렇게 하는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양한마리 건져내고 ... 잘하고 있네...
사람이 보았을때와 하나님이 보셨을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얻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가 마련해주었지만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훈련장에서 아버지가 주신 소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품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훌륭한 훈련에서 훈련을 받고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예선을 하신겁니다.
그렇게해서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게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장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지십니까?
두 산이 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협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

지로 되어있습니다.
양 그 산에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거기 이렇게 무대와도 같은 나지막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팽팽한 긴장감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위축되어있고 한쪽에서는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전쟁구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장면입니다.
한쪽은 약해져있고 한쪽은 강한 상태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왕이, 사울왕이 결별한 상태죠.
그리고 악신에 시달려서 병이 들은거죠. 일종의....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군대의 사기는 저하되어있는 상태일겁니다.
왕이 매일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야만 안정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 때문에 한번 호되게 전쟁에서 진적이 있죠.
그런데 요 약해진 상황을 보니까 옳거니 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군대앞에 포진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봤을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힘들겠다. 힘들겠다.
지금 그런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하필...골리앗이 등장하는겁니다.
안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어있는데...
거기 골리앗이 탁 등장하는데...그가 얼마나 중무장을한 거대한 사람이었는지 유독 17장에서는 길게 묘사를 해줍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왜 이 골리앗을 그의 그 중무장상태를 자세히 언급을 하셨을까?
이런식을 진행이 되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세겔이며 방태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3미터키의 55킬로그램의 갑옷 10킬로그램의 창자루 거인인데다 중무장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딱 봐도 넘볼수 없는 사람인겁니다. 넘지못한 산처럼...

야 이제 여기까지인가보다. 야 이제 더 길이 없을거같다.
여기서 내가 결국 꺽이는구나 이런걸 아주 충분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여준겁니다.
얘는 이런데 얘는 요렇다.
그런면 이제 필요한건 뭐냐는겁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요런데...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 사단의 세력이 항상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죠. 맞습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강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사단은 강한자가 맞는데...
더 강한자가 있으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자를 보여주십니다. 약한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더 강한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할 수 있겠다. 되겠다.
강한자만 봤을때는 엄청 위축되는데...
야!~~야!~~~이렇게 가는겁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 맘속에 그려주시는겁니다.
생생하게...그렇게 더 강한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밑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엄청 조롱을 합니다. 8절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블레셋의 수장 이 그 장수였던 골리앗은 지금 딱 하나만 못보고 있습니다. 딱 하나...
다 봤는데 딱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다윗의 하나님을 못보니까 이런 망언을 하게되는겁니다.

교만한 대적자는 성도뒤에있는 하나님을 못본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혹 골리앗과 같은 기질은 없는가?
순간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그러다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올라오고 어떤 일이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뭘까?
당장 적으라면 적을수 있을겁니다. 적었더니 하나님 아닌 것이 적혔다면 아내가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떠오르는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두려움이 떠오른는구나
그게 맞구나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자리에..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보다는 마귀의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나아가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 음성이 들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혹, 좌절, 의심, 불신의 소리가 자꾸 귓가에 들리는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한 이유는 그 뒤에 계신하나님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22)
그래서 아 ~~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보다는 두려움으로 먼저 떨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라면 뭔가 내 믿음에 결함이 있는... 있을 수 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을 교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는 그 타이밍에 다윗을 그 현장으로 요렇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 보시면 17장 17절보시면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다윗에게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당시에 군사 편제가 이런겁니다. 정규군이 있는게 아니라, 정규군이 없습니다.

전쟁나면 20세이상 소집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겁니다.
정규군이 없다라는것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축식량이없다. 전쟁이 길어지면 집에서 알아서 음식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이 길어졌죠. 왜냐면 블레셋사람이 사실을 조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식량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도 이제 세명의 아들중에 세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가서 좀 갖다주고 와라 음식을...
이렇게 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딱 그때였다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건 이 표현이죠.
19절 보시면요.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때가 그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마침 그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절입니다.
22절부터 읽어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성경에서 마침 그때 하필...하나님의 단어죠.
하나니만 소유하실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시기와 우연을 타고 하나님의 필연이 시작되는데, 다윗이 하필그때에 탁 듣게 되는겁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왜냐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죠. 다 듣는겁니다.

마침 다윗이 들으니라. 이제 시작되는겁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전쟁터의 장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막힌 인도와 섬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26절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26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면 뭐 재물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세금면제의 자유도 주고 다윗이 그말을 듣고 말하는겁니다.
잠깐 이 블레셋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라고 물어보는거냐? 의도가 혹시 보상을 바라는 의도냐 ?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수 있는데....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재차 물어본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죠. 골리앗을 물리치는일은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지 그것이 보상도 할까말까 고민하는 문제이겠느냐?
라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일을 감당하겠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이골리앗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건 보상을 떠난 문제다.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된자의 양심의 문제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전의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골리앗형이....교만하다고 너 구경하러 왔지.
늘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소리하냐?
그리고 너 양은 어떻게 했어 ?
너는 양만치는 아이잖아.
양치는 아이는 양치는곳에 있어야지.
네가 뭐라고 여기왔어.
그리고 네가 뭔데....그런 엉뚱한소리를 하냐고..
이 교만이 꽉찬 아이야.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누군가 사울에게 고하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말씀입니다.
이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공과제목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지만, 개인적으로 부제를 달아본다면 '가서 싸우리이다'
그것이 공과의 부제일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세가지를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교만과 용기의 차이는 뭘까?
두 번째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 뭘까?
세 번째 두려움과 담대함은 뭐가 다르냐?
그 차이점을 이 한구절을 명확하게, 다윗의 어린시절을 통해서 유추해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용기의 차이...액션은 비슷합니다. 나서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십시오. 겸손한자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교만일까요. 용기일까요?
용기죠.
겸손한자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용기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사람이 무례하게 내가 할께요라고 하면 교만입니다. 왜냐면
내가 할게요라는 그 마음안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자가 왜 교만합니까? 사울을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는 순간부터...그때부터가 교만이 시작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다윗이 말하는 장면엣서는 용기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주 위험한 일을 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나서면 무모한걸까요? 담대한 걸까요?
무모한 겁니다.
왜 이런거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이 평소에 열심히 그와 흡사할일을 연습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아 그럼... 제가 해야될거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모함이냐 담대함이냐?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장면에서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를 가를수 있다면 그것은 훈련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오면 담대함일고 훈련없이 나오면 무모한거겠죠.
훈련없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쉽게
속어로 깡만좋다 그러죠.
깡만....
그럼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도 엿볼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교만과 용기 무모함과 담대함....다 나서는 장면인데..
이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는 소극과 적극의 모습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겁니다.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여기서...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사랑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켜야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한마다로 사랑 때문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그럼 나도 누군가를 붙잡아 주길 위해 교회 학교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이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깊이 심겨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여전히 사랑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은 있다.
그러나 사랑이 개입하니까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수가 없는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그래서 나아간겁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훈련된 모습속에서 담대함을 가질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싸우겠나이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것을 점검해볼필요가 있을겁니다.
나는 눈치를 살피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신앙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 있죠.
주여 내가 여기있나이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백처럼 누군가의 이런 안타까운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 약아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신앙이죠.
혹 내가 지난주일, 지난한달 눈치를 살피는 신앙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하겠나이다하는 주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내가 혹시 약아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신학자가 쓴 그글을 보고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약아빠진 생활을 너무 오래했구나...
이대로라면 계속 그럴수도 있겠구나 무언가 내가 교정되어져야할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이봉사와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혹 이기적인 목적의 의해서 때로는 하기도하고 말기도하고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다윗의 발끝도 따라가기 어렵겠구나
그런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가운데 이런 대목을 주의해야 하죠...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

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지나난날의 모습이 이렇게 본인의 회상으로 그려집니다. 본인의 회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아이들이 어린시절을 하나님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훈련....훈련은 왜 받습니까? 묻는다면 한만디로 대답할수 있는분이 있겠죠?
그랬을겁니다. 훈련을 왜 받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일 때 쓰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총쏘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남발하는 훈련합니까?
큰일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그들의 생명의 위협가운데서 딱 한번 쓰는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겁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십년뒤의 모습을 아십니까?
그는 그뒤로 물뫼와 돌맹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필요가 없었죠.
이전투에서 승리한이후에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이면 칼을 써야죠.
이거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왜했냐라는 겁니다. 평소에....
요때에 요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긴시간 훈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일 때 쓰실려고 그래서 훈련을 그런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수 없습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들이 암송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죄의 유혹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매사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는 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주일헌금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우리아이들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선생만한 아이들은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받은 대로 아이들을 그 수준까지 가르칠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학교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해야할 일중에 무엇이 있는냐?

성실하게 훈련받는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이훈련장에서....
직장이라는 훈련생활...사회라는 훈련생활....가정이라는 훈련생활....교회라고 하는 훈련장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면, 받아야되느냐....
이거 받아야 내가 결정적일 때 살아남을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훈련...훈련....
이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겠나이다. 훈련받은사람만 그런 담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말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목숨을 받쳐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냥 나온거냐.
반드시 훈련이 있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훈련안시키는 부대가 어디있습니까?
훈련 안시키는 지휘관이 어디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그 주특기에 맞게 지금도 끊임없이 치밀하게 훈련을 하고계시는 근원이시다.
결국 그 훈련장에서 성실하게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갈수 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서 싸우겠나이다라고한 다윗의 말 다음에 나온 사울의 대답이 참 기가막히죠.
37절 후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앞부분에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가라 원하노라라고 대답을 한겁니다.
왜 사울이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말리는 거에요. 믿음이 보입니다. 용기가 보입니다. 담대함이 보입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며, 이건 덩어리가 완전히 하나님앞에 활

활 불타오르는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니까 야 이거 못말리는 거구나 얘 꼭 보내줘야 되겠다.
안되겠다. 빨리 보내줘야되겠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사울과같은 입장에 있었으면 다윗을 보고 그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9절보겠습니다.
39절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중요한 모습만 딱딱 색칠을 하면 익숙치 못하므로, 익숙치 못하니 곧 벗고
이렇게 되겠죠.
익숙치 못하므로 익숙치 못하니....
곧 벗고....
한마디로 뭡니까?
익숙치 않으면 벗으셔야 되요.
익숙하지 않는데 입고있는거 있죠.
익숙치 않으면 벗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라는건 속일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고, 자기와 어울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동떨어지게 나둔거라면 그거 누가 붙여줘도 벗어야 됩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익숙치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려는게 아니구나 벗어야 되겠다.
계속입고 있으면 어떤일이 벌어지죠.
험한꼴 당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입고나왔다고 쳐보십시오.
달려나가는게 어~~앞을 가렸어요. 어디야?
칼을 뺏는데 칼이 다 안나왔잖아요.
칼이 다 안나옵니다. 짧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익숙치 않으면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안되느냐?
진짜 자기에게 익숙한걸 잡아야죠.
익숙한걸 잡아야 됩니다.
아까 그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중에 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시냇가로 가서 돌멩이 주어오는 장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다면 막...킥킥 거렸을겁니다.
킥킥...뭐하냐 ...시냇가에는 놀러가나보다. 어!~ 돌멩이 줍네...
어~~이상하다.
장난치는 모습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정 대조되는 시선이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고르는 다윗의 손과 마음을 어떻게 동요하셨을까?
이랬을겁니다.
다윗아 훈련한대로 하자 연습한대로 하는거야 그거 그거 골라 그리고 준비해야돼. 우리 준비 했었잖아 하나 더 골라 또
몇 개를 고릅니다.
다윗은 엄청 진지했던겁니다.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진지함으로 그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다! 장난 같았는데, 다윗과 하나님만큼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벗고 나간 다윗을 봤죠
그냥 자기 평상복 입고 시냇가로 나가는 다윗을 봤습니다. 근데 못 본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그 자리 계셨더라면, 보실 수 있었을 거에요.
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윗은 휘감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지휘관이신데,
지휘관이 지금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전신갑주를 안 입히고 내보내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기장착을 최종적으로 하러 무기고로 가는 겁니다. 무기고로 신중하게 무기를 골라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어떤 것 보다도 가볍고, 어떤 것보다도 탄탄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날쌔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전신갑주가 그 다윗을 휘감고 있는 장면을

우린 봐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돌멩이를 고를 때
이런 오류에서 벗어 나셔야 합니다.
야, 돌멩이까지 고르냐? 다윗,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대로해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을거에요.
야, 너 내가 믿음 인정해줄게
갑옷 다 벗어
이제 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가서 때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을 때, 기도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실한 기도와 믿음이 있을 때는 신실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 곧장 들어갔느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믿음 없는 행동이었느냐? 불신의 행동이었느냐?
아니죠, 신실한 기도와 믿음에 신실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그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전을 제건할 때 대적들의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 경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파수꾼까지 두느냐
그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기도와 믿음이 있으면, 신실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윗 또한 믿음과 그 기도, 다음에 반응을 보인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크리스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하고
행동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하고
그게 신실한 기도의 신실한 반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신실한 반응을 보였느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교사를 했는데 믿음의 교사답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거구나
반응을 보이자
주님 제가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치밀한 노력과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실천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훈련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의 핵심은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그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었다
다윗의 그 용기는 훈련된 용기였다.
다윗의 담대함은 훈련된 것이었다. 틀림없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사된 자로서 먼저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훈련된 아이들을 배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라고 하는 훈련장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입소 시켜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훗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열심히 주님위해 살고 있을 때, 옛날을 회상할 겁니다.

그날 어린시절 교회학교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훈련들을 그 훈련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을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싸우러 가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야,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배워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배우고 더 연습을 해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텐데
내가 부족한 게 훈련이구나
혹시 하나님은 내게 많은 훈련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자주 너무 여러 번 훈련을 피하고, 피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좀 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핵심은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어른, 부모,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몰라서, 둘째 훈련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는 것 알려줘야 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훈련'이라는 중요한부분을 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훈련. 우리가 혹 회피하고 있는 훈련.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담대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학교 안에서 온전히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로서의 올바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의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